



이범호의 도전... 1000→300→11... 2000

〈천타점 달성〉 〈300홀런 -2〉 〈타이거즈 V11〉 〈2천경기 -200〉



1000을 넘고 300 그리고 11을 향해 걸어 가는 KIA 타이거즈의 이범호다. 프로 18년 차의 이범호에게는 지나온 시간이 기록으로 쌓이고 있는 시즌이다. 이범호는 지난 7월 5일 SK와의 원정경기에서 3-12로 뒤진 5회초 무사 1-2루서 상대 선발 다이아몬드의 공을 좌측 담장으로 넘기면서 개인 통산 1000타점을 넘어섰다. 평소 목표로 했던 '1000타점'을 채우면서 이범호는 타이거즈의 첫 1000타점 사나이가 됐다. 리그 전체로 따져도 1000타점 타자는 이범호까지 14명에 불과하다. 다음 시즌은 '300'으로 향하고 있다. 역시 이범호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던 목표, 300홀런이다. 초반 주춤했던 한방이 지난 7월 9개가 나오면서 이범호는 통산 298홀런에서 8월

“목표 달성하니 되레 담담...홀런도 그럴 듯”

“개인기록보다 팀이 더 중요...우승위해 뛰다”

을 맞이했다. 공교롭게도 이범호는 자신의 야구가 시작된 '친정' 대전으로 가서 300홀런에 도전하게 됐다. 주중 안방에서 kt 위즈와 상대한 KIA는 주말에는 대전으로 가 한화 이글스와 경기를 갖는다. “광주에서 (300홀런을) 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이범호지만 2일 경기기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홀런에 도전할 타석이 줄었다. 300홀런의 도전 무대가 될 대전은 이범호에게는 의미가 있는 곳이다. 대구고를 졸업한 이범호는 2000년 한화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를 밟았다. 첫해 성적은 74타수 12안타(1홀런) 타율 0.162, 6개의 실책을 기록하는 등 실익은 수비로도 고전했다. 프로 두 번째 해 성적도 비슷했다. 그러나 2002년 11개의 홀런으로 처음

두 자릿수 홀런을 기록한 뒤 점점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133경기를 치르면서 처음 '3할 타자(0.308)'로 이름을 올렸고 23개의 홀런까지 터뜨렸다. 한화 선수로 기록한 홀런은 160개, 일본 소프트뱅크를 거쳐 2011년 타이거즈 선수로 새 출발을 한 그는 꾸준하게 한 방을 날리며 300홀런 고지를 향해 달려왔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42경기만 나와 2홀런에 그쳤던 2012년을 제외하면 2002년 이후 꼬박꼬박 두 자릿수 홀런을 이어왔다. 이번 주말 이범호의 기록이 달성되면 1호 홀런을 기록했던 상대팀에서 300홀런을 기록하게 된다. 이범호가 2000년 생애 첫 홀런을 기록한 상대가 바로 해태 타이거즈다. 프로 통산 9번째 300홀런을 앞둔 그는

특별한 홀런 기록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는 만루에서 15번이나 담장을 넘기면서 최다 만루홀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앞선 최고 기록은 심정수의 12개, 현역 최고는 NC 이호준, 삼성 이승엽, 롯데 강민호의 10개로 당분간 깨지기 힘든 기록이다. 300홀런을 앞둔 이범호는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11'을 보고 있다. 타이거즈의 11번째 우승이자 자신의 프로 첫 우승의 꿈이 이범호의 간절한 목표다. 이범호는 “1000타점을 꼭 하고 싶었는데 막상 하니 생각보다는 답답했다. 300홀런도 그럴 것 같다”면서도 “목표를 보고 달려왔고 그걸 이루고 나면 열심히 해왔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2000경기를 준비하겠다. 1800여 경기를 했으니 시간이 지나면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우승은 당연한 목표고 올해 반드시 해야 하는 목표다. 지금은 내 개인적인 것보다 팀이 더 중요하다. 초반에 못했던 부분이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세계 1위 유소연 “그랜드슬램 목표”

“브리티시 여자오픈 반드시 제패”

여자골프 세계 1위 유소연(27)이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자신의 새로운 목표로 내걸었다. 유소연은 2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파이프의 킹스반스 골프 링크스(파 72·6677야드)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와 한국어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랜드슬램이 되고 싶은 꿈이 있어서 (브리티시 여자오픈은) 반드시 우승해야 하는 대회”라고 밝혔다. 6월 말에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며 “늘 바라던 꿈을 이뤘다”고 밝혔던 유소연이 커리어 그랜드 슬램에 대한 꿈을 키워가기 시작한 것이다. 유소연은 2011년 US오픈에서 우승했고, 올해 ANA 인스퍼레이션을 제패하면서 메이저 2승을 기록 중이다. 올해 남은 두 차례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오픈과 에비앙 챔피언십을 휩쓸면 이번 시즌 내에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수 있다. 3월 개막한 브리티시오픈 1라운드에서 세계 랭킹 2위 렉시 톰프슨(미국), 3위 에리아 주타누간(태국)과 1, 2라운드 동반 플레이를 벌이게 된 유소연은 “항상 이 대회가 가장 우승하고 싶은 대회”라고 열정을 내보이며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기보다는 이 대회를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하고 흥미롭게 해주는 요

소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시즌 LPGA 투어에서 상금과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 모두 1위를 달리는 유소연은 “링크스 코스는 일반 코스보다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또 안 좋은 날씨에서 경기하는 것이 힘들지만, 대회를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지난달 US오픈에서 정상에 오른 박성현(24)은 “첫 우승이 나왔고, 그다음 주 대회에서 10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 샷이나 퍼트, 어프로치 등 자신감이 커지고 샷도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현은 “지난해 브리티시오픈에 출전했지만, 그때는 링크스 코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링크스 코스는 처음 접해본다”며 “연습라운드를 돌면서 생소한 느낌이 들었지만 재미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날씨를 가장 큰 변수로 꼽은 박성현은 “안 좋은 날씨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면 좋은 성적이 날 것”이라며 “링크스 코스에 빨리 적응하고 파운이 되지 않았을 때 상황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이저 대회 2연승에 도전하는 그는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대회가 기다려진다”고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연합뉴스

우천 세리모니 김호령 “워터파크 온 기분”



▲워터파크 온 기분이었죠 = 발길을 돌려야 했던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준 시원한 우천 취소 세리모니였다. 지난 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KIA와 kt와의 홈경기는 우천으로 취소됐다. 경기 시작 30여 분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

리면서 결국 우천 취소가 결정됐다. 이미 많은 팬이 관중석에 입장해 있던 만큼 KIA는 우천 취소 세리모니로 팬서비스에 나섰다. 주인공은 김호령과 최원준이었다. 김기태 감독까지 그라운드에 나와 함께 한 우천취소 세리모니 현장. 시원하게 방수포 위를 달려 3루에서 홈으로 슬라이딩을 한 김호령은 한 차례 더 질주하면서 박수를 받았다. “수석 코치님께서 특별한

이벤트가 없느냐고 물어보셔서 주장님이 들을 지목했다”며 세리모니자로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한 뒤 “워터파크에 온 줄 알았다. 너무 재미있어서 한 번 더 했다”고 웃었다. ▲6회까지 던져야 할 선수가 일단 = 적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신입 호랑이’ 김세현이다. 7월 31일 트레이드를 통해 유니폼을 갈아 입은 김세현의 데뷔전은 마운드 난조와 비로 이를 미뤄졌다. 1군에 등 록된 1일에는 선발 정용운이 1회 8실점을 하면서 무너졌고 “시합 나갈 수 있는 (리

드) 상황에서 최대한 편하게 올리겠다”고 언급했던 김기태 감독은 김세현을 투입하지 않았다. 2일에는 비가 오면서 아예 경기가 취소됐다. 3일 김세현의 투입 시점에 대해 질문을 받은 김 감독은 “6회까지 던져야 할 선수(양현종)가 일단 던지고 난 뒤”라며 상황에 따른 투입에 대해 이야기했다. 후반기 KIA의 불펜 운영은 팬들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KIA는 김세현·임창드 난조와 비로 이를 미뤄졌다. 1군에 등 록된 1일에는 선발 정용운이 1회 8실점을 하면서 무너졌고 “시합 나갈 수 있는 (리

‘부상’ 사라포바 웨스트 클래식 2회전 기권

US오픈 출전도 불투명

마리아 사라포바(171위·러시아)가 왼쪽 팔 부상을 이유로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뱅크 오브 더 웨스트 클래식(총상금 71만 900 달러) 2회전에 기권했다. 사라포바는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에서 진행 중인 이 대회 2회전에서 러시아 트수렌코(32위·우크라이나)와 상대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경기 시작에 앞서 왼쪽 팔 부상 사실을 공지하며 기권을 선언했다. 이번 주범을 사용하지 긴 하체가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속도가 조금 느려도 보폭을 크게 해 전체 걸음 수를 줄이니, 기록이 향상됐다. 이렇게 완성된 ‘볼트의 주법’을 감상하는 것도 런던 대회가 마지막이다. 볼트의 목표는 당연히 금메달이다. 볼트 대항마들에게도 런던 대회는 특별하다.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 메이저대회에서 수없이 볼트에게 도전했지만, 매번 무너졌던 저스틴 개틀린(35·미국)은 “볼트는 위대한 육상 선수다. 그에게 도전하는 건 육체적으로는 물론 심정적으로도 힘든 일”이라고 토로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다시 도전한다”고 했다. 현지 언론이 또 다른 볼트 대항마로 꼽은 안드레 드 그라세(23·캐나다)는 허벅지 부상으로 출전을 포기했다. /연합뉴스

를 2-1(6-1 4-6 6-0)로 제압한 사라포바는 16강 진출로 이번 대회를 마치게 됐다. 사라포바는 “1회전 경기 막판 왼쪽 팔에 통증을 느꼈다”며 “병원 진단 결과 2회전을 뛰면 부상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라포바의 다음 일정은 14일 미국 하이어스 신시내티에서 열리는 WTA 투어 웨스턴 앤 서던오픈이다. 28일 개막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오픈 출전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사라포바는 올해 5월 프랑스오픈 출전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6월 월블던에는 예선 출전 자격이 있었으나 부상으로 불참했다. US오픈의 경우 예선에는 필 자격을 갖췄고, 본선에 바로 들어가려면 주회 측 초청인 와일드카드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세계육상선수권 내일 개막... 100m 출사표 던진 두 남자



“사상 첫 예선 통과” 첫번째 발

김국영

‘한국 최고의 스프린터’ 김국영(26·광주광역시청)이 출전하는 제16회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 17명(남자 11명·여자 6명)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선수는 단연 김국영이다. 그는 100m 한국기록을 5번이나 갈아 치운 한국 육상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특히 2010년 처음으로 한국기록을 경신했을 때는 육상계를 넘어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다. 무려 31년 만의 새 기록(10초 23)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권 획득 과정도 극적이였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제시한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 기준 기록은 10초 12였다. 한국신기록을 세워야만 런던행 티켓을 거머쥌 수 있는 상황이였다. 김국영은 결국 해냈다. 6월 27일 코리아오픈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10초 07로 다시 한국기록을 경신하며 마침내 런던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었다. 김국영은 한국시간으로 5일 새벽 100

m 예선을 치른다. 예선을 통과하면 6일 새벽 준결승에 나선다. 이번 대회 목표는 준결승 진출이다. 그는 출국에 앞서 “한국 트랙이 아직 달 성하지 못한 ‘예선 통과’를 이루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한국신기록을 세우기보다는 10초 1대를 기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기록에 초점을 맞춰서 뛰면 자연스럽게 예선 통과라는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국 트랙은 1983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1회 대회 이래 번번이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장재근이 제1회 대회에서 200m 예선 4위를 기록한 것이 가장 빛나는 성적이다. 김국영은 2011년 대구에서 열린 제13회 대회부터 출전했지만 역시 매년 예선 탈락(실격 포함)의 쓴맛을 봤다. 제13회 대구 대회에서는 100m 예선에서 실격됐고, 제14회 모스크바 대회에서는 400m 계주팀의 일원으로 한국 신기록(39초 00)을 세우고도 탈락했다. 2년 전 제15회 베이징 대회에서는 100m를 10초 48만에 뛰 어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김국영이 최근 상승세를 잘 이어가면 이번에는 준결승 진출의 꿈을 이룰 수도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마지막 발 “금메달 따고 은퇴”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31·자메이카)가 1m96cm의 큰 키를 이용해 성큼성큼 44~45보 정도를 내디디면 ‘마지막 축제’가 끝난다. 볼트는 4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막하는 2017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끝나면 은퇴한다. 이번 대회에는 100m와 400m 계주만 뛴다. 200m는 참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개인 종목’인 100m 경기에 관심이 쏠린다. 볼트는 5일 오전 4시 20분 100m 예선을 치르고 6일 오전 3시 5분 준결승, 오전 5시 45분에 결승전을 치른다. 예선, 준결승에서는 피니쉬라인 30여 m를 앞두고 속도를 확 낮추는 볼트만의 ‘여유’가 볼거린다. 그리고 결승에서는 볼트가 마지막으로 100m에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9초 6대를 뛴 2012년까지만 해도 볼트는 41~42보에 100m를 뛴다. 전성기가 지나고, 만성적인 허벅지 통증을 앓는 지금은 44~45보에 100m를 뛴다. 사실 44~45보도 다른 세계 정상급 선수보다 2보 정도 적다. ‘긴 보폭’에는 아픈 사연도 담겼다. 볼트는 어린 시절 척추 측만증을 앓았다. 척

추가 변형된 상태로 허리를 곧게 펴기 힘들다. 그래서 볼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했다. 척추 측만증으로 어깨와 골반이 평형을 이루지 못해 발 움직임에 방해받자, 오히려 어깨를 더 크게 흔들고 보폭을 넓혔다. 몸 전체에 반동을 주니 발과 발 사이의 길이가 멀어졌다. 이런 주법을 사용하지 긴 하체가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속도가 조금 느려도 보폭을 크게 해 전체 걸음 수를 줄이니, 기록이 향상됐다. 이렇게 완성된 ‘볼트의 주법’을 감상하는 것도 런던 대회가 마지막이다. 볼트의 목표는 당연히 금메달이다. 볼트 대항마들에게도 런던 대회는 특별하다.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 메이저대회에서 수없이 볼트에게 도전했지만, 매번 무너졌던 저스틴 개틀린(35·미국)은 “볼트는 위대한 육상 선수다. 그에게 도전하는 건 육체적으로는 물론 심정적으로도 힘든 일”이라고 토로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다시 도전한다”고 했다. 현지 언론이 또 다른 볼트 대항마로 꼽은 안드레 드 그라세(23·캐나다)는 허벅지 부상으로 출전을 포기했다. /연합뉴스

